

임준 연구위원

요약

지난 10년간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거의 없었고, 그룹의 조직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거의 없었음. 혁신, 조직의 다양성, 선택과 도태 등 동태적 요인들이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는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을 평가해보면, 조직의 다양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정책방안으로는 1社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계약이전제도 정비를 포함한 퇴출제도 개선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지난 10년간의 국내 보험산업을 구조적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보험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거의 없었고, 그룹 조직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거의 없었음
 - 생명보험회사 수는 22~25개, 손해보험회사 수는 재보험회사를 포함해서 30개 내외가 유지되었는데,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진입과 퇴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수치가 유지되었음¹⁾
 - 또한 1社 1라이선스 허가정책으로²⁾ 인해 그룹별로 생명보험회사 1개와 손해보험회사 1개씩만을 가질 수 있어서 보험그룹조직의 형태도 변화를 주기 어려웠음
-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다각화 및 사업구조조정 목적에서 신설, 인수, 매각 등을 통해 다양한 보험그룹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보험그룹 중 일부는 MZ세대의 디지털 수요와 소액단순 보장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였음
 - 한편, 미국 메트라이프의 경우에는 최근 개인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관련 사업 분야를 매각하고 단체생명보험시장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보험그룹 조직을 개편하였음
-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산업구조를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보험회사 수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참고함

2) 1社 1라이선스 허가정책이란 다음을 의미함: ① 각 그룹별로 생명보험회사 1개와 손해보험회사 1개씩만을 보유할 수 있음; ② 예외적으로 온라인 전문보험회사는 설립 가능하나, 이럴 경우 모회사가 온라인 채널을 사용할 수 없음. 예를 들어, 교보생명의 경우, 온라인 전문보험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설립함으로써 모회사인 교보생명도 온라인 채널을 사용할 수 없음; ③ 원칙적으로 M&A 시에는 그룹 내 두 회사는 합병됨

○ 진화경제학은 생물학의 진화론을 차용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명을 받게 되었음³⁾

- 진화경제학이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슈페터주의자(Neo-Schumpeterian)**, **오스트리아학파**, **제도주의학파** 등이 진화경제학의 범주에 해당되는데, 공통점은 연구의 초점이 시장의 동태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임
 - 신슈페터주의자는 주로 기술변화, 혁신, 산업발전, 시장구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스트리아학파는 지식의 주관성 내지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 시장의 진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제도주의 학파는 경제의 기본적인 요소를 기술, 제도, 자원, 인간으로 분류하고, 이들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동태적으로 진화한다고 봄

○ 진화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경제활동(Economic Activities)과 경제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 등에 있어서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차이를 보임⁴⁾

-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활동은 주어진 생산조건과 시장수요하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최적의 해(Optimal Solution)를 선택하는 행위인 반면, 진화경제학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질적 경제활동은 경제주체가 더 좋은 것(The Better Thing)을 찾아가는 탐구 행위임
- 경제주체의 합리성과 관련된 기본 가정에 있어서도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진화경제학은 차이를 보임
 -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의 모든 의사결정이 합리적 계산의 결과이지만, 진화경제학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진화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시장경쟁하에서의 선택(Selection)과 도태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진화해나간다고 봄
 - 따라서 진화경제학에 있어서 전략과 조직의 다양성(Diversity)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음⁵⁾

○ 진화경제학은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도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의 중요성을 강조함⁶⁾

- 시장의 효율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정태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과 동태적 효율성의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전자는 비용과 가격 간 격차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비용과 가격의 격차가 클수록 시장의 비효율성이 크다

3) 이요섭(2020), 『진화경제학의 이해』, 연암사

4) Nelson, R.(2018), "Economics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Modern Evolutionary Economics: An Overview*, Edited by Nelson, R.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 벨리를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① 조직의 다양성(High Diversity of Organizational Forms)과 ② 활발한 진입·퇴출(High Rates of Demographic Turnover)임; Carroll, G. R. and M. T. Hannan(2000), *The Demography of Corporations and Indus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6) Nelson, R.(2018), "Why Do Firms Differ, and How Does It Matter?" in *Fundamental Issues in Strategy*, Edited by R. P. Rumelt, D. E. Schendel and D. J. Tee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고 볼 수 있음(완전경쟁시장의 경우 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반면, 독점시장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용을 상회함)
- 후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 새로운 조직 형태의 도입 등 산업의 동태성(Dynamics)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고 전략과 조직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발전하는 경우 동태적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내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동태적 측면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보험그룹조직의 다양성 및 보험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보험회사가 환경변화(IFRS17 및 K-ICS 도입, 디지털화, MZ세대의 부상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역량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장에 의해 평가받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현행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계약이전(Portfolio Transfer)제도 정비 등 퇴출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7)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2019년 수입보험료 기준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값이 1,037로 정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HHI 값이 1,200 미만이면 非집중시장, 1,200~2,500이면 집중시장, 2,500을 초과하면 高집중시장으로 분류함) 새로운 기업의 진입, 보험그룹조직의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동태적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